***Session 4 Abiding in Love: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제 4강 사랑 안에 거하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체**

1. the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체
	1. The Holy Spirit’s first agenda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the Church. Jesus referred to Deuteronomy 6:5 and then defined loving God as the first commandment, thus identifying it as the highest priority to God and the first calling in our life and for every ministry.
	성령님의 첫 번째 아젠다는 교회 안에서 첫 계명을 첫째 자리로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5절을 언급하신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규명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우선이고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을 위한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알게 하셨다.

37Jesus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t. 22:37-38)
37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 1. The comman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does not begin with us. It is one expression of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that existed long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namely God’s heart that burned with perfect love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즉, 삼위일체의 세 인격의 교제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체의 한 표현이다.
	2. God is love—wholehearted love (1 Jn. 4:16). The very being of God is wholehearted love. Wholehearted love is primary in the relationships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From eternity past, God has loved God with all of His heart and strength. The Father loves the Son, the Son loves the Spirit, etc. God is fully satisfied in the fellowship within the Godhead.
	하나님은 사랑, 즉 전심의 사랑 (요일 4:16)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전심의 사랑이시다. 전심의 사랑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 안에 있는 주요한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성령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신격 안의 교제에 완전히 만족하신다.
	3. We must see the first commandment in its eternal context of the fellowship in the Godhead instead of it being merely one aspect of kingdom ethics. He wants us to respond in wholehearted love because it is *who He is* and *who He created us to be*. We were created in His image for wholehearted love. It is the core reality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essence of salvation.
	우리는 첫째 계명을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측면의 하나로 보는 것 대신에 신격 안의 교제 라는 영원한 문맥 상에서 보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의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심의 사랑을 위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의 본질의 핵심적 실체이다.
	4. “God’s desir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His infinite power and great wisdom are employed to carry out His desires—they are used to establish His plan to fill the earth with love.
	 “하나님의 갈망”은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크신 지혜는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즉,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 되어질 것이다.
	5. The love burning in God’s heart has at least five distinct expressions that are deeply interrelated.
	하나님의 마음 안에 타오르는 사랑은 적어도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표현 되어지지만 깊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1. ***God’s love for God***: Each person in the Trinity intensely loves the others with all their heart.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각 인격은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2. ***God’s love for His people***: He loves His people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He loves the redeemed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He loves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rinity.
		**그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마음 다해, 생각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강도로 구속된 자들을 사랑하신다.
		3. ***Our love for God***: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Spirit (Rom. 5:5).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그분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전이 해주신다 (롬 5:5).
		4. ***Our love for ourselves***: We love our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5. ***Our love for others***: We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experiencing God’s love (1 Jn. 4:19).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요일 4:19).
	6. These five expressions of love constitute what I refer to as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Our greatest destiny is to participate in the burning love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rinity.
	이 사랑의 다섯 가지 표현은 내가 **불타는 마음의 교제**라고부르는 것을 구성한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7. ***Abide in love***: God loves us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God loves God (Jn. 15:9; 17:23).
	We are to abide in or *stay focused on* living in His love in its various expressions. Thus, we are intentional about continuing in conversation with Him about receiving and expressing His love.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15:9; 17:23).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에 거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도록 의도해야 한다.

9“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9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1. The truth of the ***abiding in love*** is developed in John 13-17. These chapters give us insight into Jesus’ life of abiding in God and the nature of God, His kingdom, and our relationship to Him.
	**사랑 안에 거하라**는 진리는 요한복음 13-17장에서 진전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1. God’s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 The first expression of perfect love is found in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Trinity. The Son loves the Father (Jn. 14:31), and the Father loves the Son (Jn. 3:35; 5:20; 15:9; 17:23). Their love is the foundation of all the love experienced in the kingdom.
	완전한 사랑의 처음 표현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에서 찾아진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요 14:31),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 3:35; 5:20; 15:9; 17:23).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토대이다.
	2. ***The Holy Trinity***: There is one God who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each fully possess all of God’s attributes.
	Each person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relationship and work. Each person’s work is unified, fully engaged with, and interdependent on the others’ work.
	**거룩하신 삼위일체:** 신성한 인격으로서 동등하시지만 뚜렷이 구별 되시는 세 인격이 영원히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각각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완전히 소유하신다. 각 인격은 관계와 일에서의 각 기능과 권세는 다르다. 각 인격의 행하심은 다른 분들과의 행하심에 연합되고, 완전히 참여하시며, 또한 상호의존하신다.
	3. In John 13-17, Jesus taught on the union of the three persons in the Trinity—the Father lives in the Son, and the Son in the Father (13:32, 34; 14:10-12, 20; 17:11, 21-23). Thus, the three persons are one in heart, thought, and action, so that the one God acts as one and as three.
	요한복음 13-17장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의 세 인격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사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사신다 (13:32, 34; 14:10-12, 20; 17:11, 21-23). 따라서, 이 세 인격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또는 세 인격으로서 행하신다.

10“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The Father who dwells in Me does the works. 11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Jn. 14:10-11)
10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11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
 (요 14:10-11)

21“…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may be one in Us… 22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23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an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have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1-23)
21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23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1-23)

* 1. ***Their relationships:*** The union in the Godhead reveals the nature, quality, and intensity of Their love. Their relationships are the *model* and *source* whereby we relate to God and each other.
	**그분들의 관계**: 신격 안의 연합은 그분들 사이에 나누시는 사랑의 본질과 질, 그리고 강도를 나타낸다. 그 분들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의 **모델**이요 **원천**이다.
		1. They give us a picture of what perfect love is, and of how God relates to God,
		how He relates to us, and how we relate to Him and others.
		그분들은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관계하시는 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준다.
		2. Each person of the Trinity enjoys and fully engag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Jesus has joy and enthusiasm in His love for the Father. He is moved in loving the Father and in being loved by the Father. His love is never mechanical. He is neither disinterested
		nor bored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를 즐거워 하시며 관계에서 완전히 참여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신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사랑 받는 것에 감동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무관심하시거나 지루해 하지 않으신다.
	2. ***Their work***: The three persons are each fully involved with every work of God (Jn. 10:38)—creation, the incarnation, healing miracles, the atonement, the resurrection (Jn. 10:18), etc.
	**그분들의 행하심**: 세 인격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각각이 완전히 참여하시는데, 그것은 창조, 성 육신, 치유 기적들, 구속, 부활 (요 10:18) 등이다.

38“…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the Father is in Me, and I in Him.” (Jn. 10:38)
**38…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 10:38)**

18I lay it [His life] down of Myself…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Jn. 10:18)
18… 내가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 (요 10:18)

* 1. God’s eternal nature is humility. The Spirit delights in glorifying the Father and the Son
	(Jn. 16:13-15). Jesus delights to use His authority to honor the Father (Jn. 5:23; 8:49-54; 12:26; 13:31-32; 14:12; 17:1, 4-5, 22, 24; 18:19). He is forever the greatest Man and, thus, the greatest servant (Mt. 23:11). He will relate to us forever with humility and a servant’s heart (Lk. 12:37).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은 겸손이시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요 16:13-15).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 (요 5:23; 8:49-54; 12:26; 13:31-32; 14:12; 17:1, 4-5, 22, 24; 18:19). 예수님은 영원토록 가장 위대하신 사람이시기에 가장 위대한 종이시다 (마 23:11). 예수님은 겸손과 종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관계하실 것이다 (눅 12:37).
	2. The glorious truth of the union within the Trinity affects how we read the Scripture. We can gain insight into this grand reality by meditating on the details in Scripture of how each person in the Godhead relates to the others. When reading the Gospels, think on how the Father and the Spirit were deeply involved with joy in each of the works that Jesus did.
	삼위일체 안의 영광스런 연합의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에 영향을 준다. 신격 안에서 각각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하시는 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자세히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대한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얼마나 깊이 참여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3. As we read each episode in the Gospels, we should pause to ***thank God*** for the details of how the Trinity worked together and to ***ask for more insight***. We ask the Spirit to show us what each divine person ***did*** and ***felt*** and how ***we are to respond***. Reading the Scripture in this way can be like a treasure hunt into the beauty of God that fascinates and exhilarates our heart.
	우리가 복음서의 각 에피소드를 읽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함께 행하셨는지에 **감사하고** **더 많은 통찰을 주시길 구하기** 위해 잠시 잠깐씩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께 각 신격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느끼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하는** **지**를 보여 주시길 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혹시키고 전율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물 찾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
	4. The details of their relationship give us insight into Jesus’ beauty, supremacy, and worth. It also gives us insight into the way that He loves us and how He wants us to love Him and others.
	그분들의 교제의 세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 뛰어나심과 존귀함에 대한 통찰을 준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 지에 대해 통찰을 준다.
	5. Our primary life goal and preoccupation needs to be focused on beholding God’s love. This includes understanding, experiencing, and imparting the truth of His love to others. By beholding or seeing the quality of this love, we are more empowered to resist temptation, endure persecution, and press into God in the midst of various trials without drawing back.
	우리 삶의 주요 목표와 몰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 경험하는 것, 전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질적 사랑을 바라보고 이해함에 의해, 우리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고 핍박을 견디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양한 여러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도록 더 많은 힘을 받게 된다.

1Behold what manner [quality]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1 Jn. 3:1)
1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양질의]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 (요일 3:1)

* 1. We are to make this the primary preoccupation of our life before, during, and after revival. We do not need to wait for revival or special seasons of visitation to deeply engage in this reality.
	부흥 전과 동안과 후에도 우리는 이것에 주로 몰입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현실에 깊이 참여하기 위해 부흥이나 하나님 방문의 특별한 시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1. God’s love for His people
그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1. Jesus declared that He loves the redeemed in the same way or intensity that His Father loves Him (Jn. 15:9). He said that the Father also loves the redeemed with this same intensity (Jn. 17:23). Father, Son, and Spirit love the redeemed with all thei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동일한 방식과 강도로 구속 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다 (요 15:9). 예수님은 아버지 또한 동일한 강도로 구속 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요 17:23).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당신들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해 구속 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9“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9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 1. Love, by definition, demands an expression—to be shared and multiplied. He wanted others to experience the joy of their experience of perfect love. God created human beings to participate in this glorious fellowship because ***He is love***. God does not lack anything. He has no need. He did not create humans because He was lonely or discontent or lacked something emotionally.
	사랑은, 정의상, 표현을 요구한다. 즉, 나눠져야 하고 배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들이 경험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다른 이들 또한 경험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스런 교제에 참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부족하신게 아무것도 없으시다. 필요한 것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외롭거나 감정적으로 무언가 불만족 스럽거나 결핍되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1. Our lo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1. The Spirit’s first agenda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the Church
	(Mt. 22:37-38). Because of how He feels about us, He wants us to respond to Him with all our love.
	He created us in His likeness with a capacity to participate in this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Holy Spirit (Rom. 5:5).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1 Jn. 4:19). We are empowered to love by first receiving His love.
	성령님의 첫 번째 아젠다는 교회 안에서 첫 계명을 첫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다 (마 22:37-38).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길 원하시는 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즉, 불타오르는 마음의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은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사람들에게 전이 된다 (롬 5:5).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요일 4:19)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의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2. Jesus defined loving God as being deeply rooted in a spirit of obedience (Jn. 14:15, 21, 23;
	Deut. 6:1-9). There is no such thing as loving God without seeking to obey His Word.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의 영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셨다 (요 14:15, 21, 23; 신 6:1-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Jn. 14:15)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1. Our lov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1. The redeemed are to love them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We love ourselves through the lens of the revelation of Jesus, His cross, and our great worth to Him. When we see ourselves and our destiny in God’s love, it empowers us to love ourselves by His Spirit. Jesus delights in
	who we are in His love. He enjoys us enjoying His love for us.
	구속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계시의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운명을 알 때, 성령님에 의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분의 사랑을 즐기는 것을 즐거워 하신다.

39“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39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 1. Bernard of Clairvaux called it *loving ourselves for His sake*—that is, to be jealous to be all that He called us to be for His sake. Jesus does not want us to walk in false humility that minimizes how much *He enjoys loving us* and how He wants us to *enjoy being loved by Him.* We magnify Jesus
	as we love ourselves in agreement with His love for us and honor His “investment” in us. He is glorified in us as we rejoice in His will, which includes *His enjoyment* of releasing His love in
	and through us*.*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John Piper)
	성 베르나드 클레르보 (12세기 프랑스 수도사-역자주)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부르신 원래의 우리로 온전하게 되길 질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즐거워 하는지를** 축소시키는 거짓 겸손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동의하고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투자”를 존중함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뜻 안에 즐거워할 때,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존 파이퍼)
	2. A profound transformation occurs in us as we accept His love for us. This is another expression
	of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We love ourselves in His love without despising our appearance, gifting, or ministry assignment, regardless how small or difficult it is.
	Self-hatred results in a deep sense of rejection that damages our ability to love and receive love.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불타오르는 마음의 교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 은사, 맡겨진 사역을 멸시함 없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어려운 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증오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손상을 입히는 깊은 거절감의 결과이다.
1. Our love for others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1. We are to love others “as” Jesus loves us (Jn. 15:12). We do this to the measure that we see how He loves us and loves others—even those who mistreat us. Our love for others is an expression of our love for God (1 Jn. 4:7-12). We’ll forever delight in one another as God loves us.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요 15:12)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혹 이들이 우리를 잘못 대우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 (요일 4:7-12).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를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12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n 15:12)
12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39“…and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39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 1. Jesus wants us to enter into how He sees and feels about others—by seeing His bigger storyline. We feel deep emotions of zealous love when someone comes against a person we love deeply. We love fellow believers who mistreat us because God loves them just as He loves God (Jn. 15:9; 17:23). We participate in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by walking in love for others.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큰 이야기 줄거리를 앎으로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보시며 느끼시는 지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이에 대해 누군가가 대적할 때 우리는 열성적 사랑의 깊은 감정을 느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 대우하는 동료 된 믿는 자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요 15:9; 17:23).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안에 걸어가며 불타오르는 마음의 교제에 참여한다.
1. Salvation: experiencing deep relationship with God (Jn. 17:3)
구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 (요 17:3)
	1. Jesus revealed that the essence of eternal life is to know God—this speaks of experiential knowledge; it is more than intellectual information. Salvation is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deep fellowship with the Godhead (1 Cor. 1:9; 1 Jn. 1:3). It is the *why* behind the *what* of creation and redemption. Salvation is so much more than escaping hell.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여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밝히셨다. 구원은 신격과의 깊은 교제에 참여하라는 초대이다 (고전 1:9; 요일 1:3).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의 **이유**이다. 구원은 지옥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3“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Jn. 17:3)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17:3)

* 1. Make it your primary life vision to participate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which is the ***fellowship of the burning heart***. Examples of this include the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Lk. 24:32) and John the Baptist (Jn. 5:35)—who spoke of a baptism of fire (Lk. 3:16). It was seen at Pentecost (Acts 2:3) and eventually will empower all God’s people (Isa. 62:1).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체 안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삶의 주요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의 교제**를 삼으라. 이것의 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 (눅 24:32)과 불 세례 (눅 3:16)에 대해 말했던 세례 요한 (요 5:35)을 들 수 있고, 오순절 (행2:3)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사 62:1).